

Economy Brief

워시 연준, 익숙함과의 결별 그리고 불친절함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케빈 워시 의장이 처음 주재한 6월 FOMC 회의는 변화 예고와 모호성 그리고 매파 메아리만 남음
 매파적 6월 FOMC 회의 결과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금융시장이 실망 혹은 우려하는 부문은 모호함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을 키운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임
 케빈 워시 의장이 비둘기 발톱을 숨기고 있는지 아니면 매의 본색을 가지고 있는지 정체성을 확인하기는 시간이 소요될 공산이 큼. 따라서 금융시장은 워시 의장 바라보기 보다 데이터에 집중할 수 밖에 없을 것임

매파 목소리와 불확실성 혹은 모호함만 남은 6월 FOMC 회의

케빈 워시 의장이 처음 주재한 6월 FOMC 회의는 변화 예고와 모호성 그리고 매파 메아리만 남았다. 우선, 금융시장이 익숙한 점도표와 6월 수정 경제전망에는 예상했지만 짙은 매파 향기가 가득했다. 워시 의장을 제외한 미 연준 인사들은 올해 한차례 정도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열어 두었다. 6월 점도표상 올해 연방기금금리 평균값은 지난 3월 3.375%에서 3.75%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리고 지난 3월과 달리 금리인하 의견이 사라졌다. 마이런 이사의 퇴임도 영향을 주었지만 미 연준내 분위기가 매파로 돌아섰음을 의미한다. 주목할 것은 케빈 워시 의장이 점도표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그 동안 금융시장이 주목했던 점도표의 의미가 다소 퇴색될 여지를 남겼다.

수정 경제전망도 미 연준의 매파 목소리에 힘을 더해 주었다. 26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2.4%에서 2.2%로 0.2%p 하향 조정되었지만 실업률은 기존 4.4%에서 4.3%로, PCE 물가상승률은 기존 2.7%에서 3.6%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특히 코어 PCE 물가상승률이 3.3%로 3%대를 예상한 것이 눈에 띈다. 참고로 지난 3월에는 2.7%를 예상한 바 있다. 고유가 영향일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음을 뒷받침한다. 짧아진 FOMC 회의 성명서에도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한 가운데 수정 경제전망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금리인하보다 금리인상 명분이 한층 강해졌음을 의미한다.

강경한 매파 목소리가 나올 것을 금융시장이 예상되었다는 점에서 6월 FOMC 회의 결과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금융시장이 실망 혹은 우려하는 부문은 모호함 그리고 불확실성을 키운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이 아닌가 싶다. 케빈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전과 달리 금리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극도로 자제했다. 연준 내 매파 목소리를 달래 줄 것이라는 기대를 무색하게 했다. 그리고 향후 통화정책 및 물가와 관련해서도 발언을 극도로 자제함으로써 불확실성만을 키웠다. 파월의장 등 이전 연준 의장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연준 의장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금융시장 익숙했던 의장 스타일이 아니라는 점이 불확실성 리스크는 자극하는 꼴이 되었다.

또한 새로운 연준에 대한 모호성도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웠다. 케빈 워시 의장은 미 연준의 급격한 변화가 시작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미 FOMC회의 성명서가 매우 간결해진 것은 물론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대차대조표 등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 5개 분야에 대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워시 의장은 1) 연준 커뮤니케이션, 2) 연준의 대차대조표, 3) 기존 데이터 소스의 활용 및 이에 대한 의존도, 4) 전환의 시대에서 생산성과 고용, 5) 연준의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등이라고 제시했다.

미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변화와 더불어 금융시장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대차대조표 정책도 어떤 형태이든 변화될 수 있음은 금융시장 내 유동성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촉발시켰다.

요약하면 금융시장이 케빈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을 거치면서 다소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미 연준 내 매파적 목소리 강화 그 자체보다는 케빈 워시 의장의 모호성과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케빈 워시 의장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금융시장이 아직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점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케빈 워시 의장 눈치보기보다 데이터에 집중할 금융시장

이번 케빈 워시 의장 발언 중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포워드가이던스(선제안내)는 현재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며 과거 수치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발언이다. 케빈 워시 의장은 현재 데이터에 의존한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을 정책 결정에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본인의 정책적 색깔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으며 동시에 통화정책 모호성을 최대한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따라서, 워시 의장 등 미 연준 인사 발언이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이전에 비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경제 데이터,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물가와 고용지표의 데이터 내용이 국채 금리 흐름 등 금융시장 및 자산가격에 더욱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또 다른 관심사였던 케빈 워시 의장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충실히 이행하지 역시 불투명하다. 케빈 워시 의장이 비둘기 발톱을 숨기고 있는지 아니면 매의 본색을 가지고 있는지 정체성을 확인하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금융시장은 워시 의장 바라보기보다 데이터에 집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1. 6월 미 연준 수정 경제전망: 물가 전망은 상향 조정하고 실업률은 하향 조정

	2026	2027	2028	장기
GDP 성장률				
26년 3월 전망	2.4	2.3	2.1	2.0
25년 12월 전망	2.3	2	1.9	1.8
실업률				
26년 3월 전망	4.4	4.3	4.2	4.2
25년 12월 전망	4.4	4.2	4.2	4.2
PCE 물가				
26년 3월 전망	2.7	2.2	2.0	2.0
25년 12월 전망	2.4	2.1	2.0	2.0
코어 PCE 물가				
26년 3월 전망	2.7	2.2	2.0	-
25년 12월 전망	2.5	2.1	2.0	-
연방기금금리				
26년 3월 전망	3.4	3.1	3.1	3.1
25년 12월 전망	3.4	3.1	3.1	3.0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연내 한 차례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6월 점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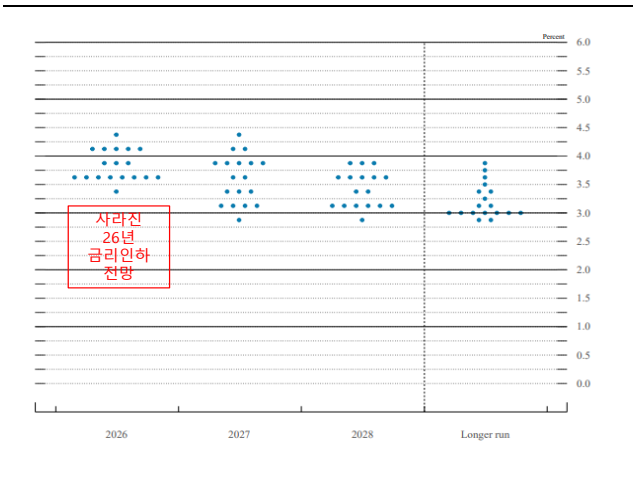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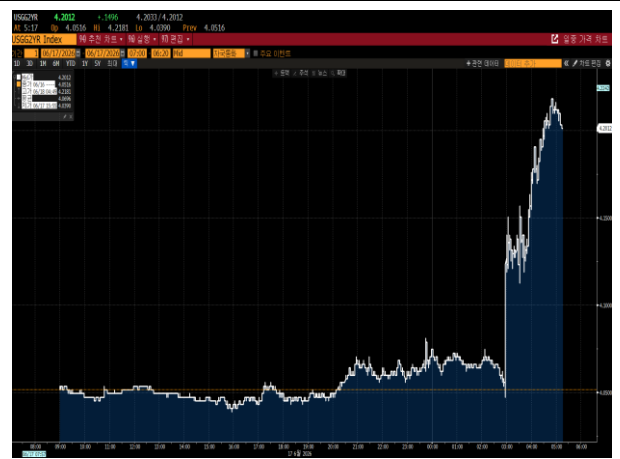


그림3. 매파적 6월 FOMC 회의 결과로 급등한 미국 2년 국채 금리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미 연준 금리인상 기대감으로 급등한 달러화 지수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박상현)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